



'해자왕'



'더 로드'



'사일런스'

다양한 해양 직업의 세계  
고교생 '마린스쿨' 운영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하이틴 마린스쿨'을 오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시-5시) 운영한다.

'하이틴 마린스쿨'은 고등학생들에게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심어 주고, 해양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중고고학, 미술사학, 해양역사학, 문화재보존과학, 전통선박공학, 해양역사학-민속학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만나 각 분야의 학문과 직업세계를 소개한다. 강의와 함께 수중발굴과 문화재 보존 체험, 전통배 항해 등 현장체험도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통해 신청 후 전자우편(chyuri@korea.kr/hyeonji1931@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 1-2학년 대상 선착순 20명. 문의 061-270-2049/2047.

/박성천 기자 skypark@

'6회 수림문학상' 공모  
장편소설 20일까지 접수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수림문학상(상금 5000만원) 공모가 오는 20일 마감된다.

수림문학상은 국내 장편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재능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수림문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신인 및 중단 10년차 미만의 기성작가의 순수문학 장르의 미발표 장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이다. 당선작 없는 가장 상금은 2500만원이다.

원고는 수림문학상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0314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수림문학상 담당자)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마감일 자정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당선작은 9월 중 수림문학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며 11월 중 시상과 단행본 출간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학상 홈페이지(www.yonhapnews.co.kr/munhak)에서 확인 가능. 문의 02-398-3591.

/박성천 기자 skypark

“카프카·톨스토이 명작, 스크린으로 함께 즐겨요”

소설영화동아리 '무소영'·'20세기소설영화독본' 프로그램 공개

영화감독인 조대영이 진행하는 두 개의 소설영화동아리 '무소영'과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18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두 동아리는 원작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감상한 후 소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다.

'무소영'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모임이 진행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동서양의 수작들로

채워졌다. 아시아작가들로는 일본의 모리 오가이와 다니자키 준이치로, 대만의 청산과 아청 그리고 한국의 박영환을 만나게 된다. 서구의 작가들로는 프란츠 카프카와 워싱턴 어빙 그리고 그레이엄 그린과 나다니엘 호손이 기다리고 있다.

무소영의 하반기 첫 시작은 16일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을 앙드레 지드가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을 읽고, 오손 웰즈 감독이 연출한 영화 '심판'을 만난다.

30일에는 모리 오가이의 소설 '산소대부'와 미조구치 겐지의 영화 '산소대부'를 만난다. 이후 워싱턴 어빙의 소설 '슬리피 할로의 전설'과 이를 영화로 만든 '슬리피 할로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중극상 감독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도 감상한다. 이 영화는 정신의 '질원과 인생'을 원작으로 한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의 프로그램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첫 시작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과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가장 내밀한 면면과 교감했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노대가의 총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그해, 여름 손님'을 만난다. 안드레 예지민의 쿼어 로맨스 소설을 제임스 아이보리가 각색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인 피아니스트 소년과 미국인 철학교수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또 코맥 매카시의 소설 '로드'와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의 영화 '더 로드',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로 만든 '사일런스', 리처드 스타크의 '인간사냥'을 각색한 영화 '포인트 블랭크'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참가비 무소영 1만원, 20세기소설영화독본 3만원. 문의 무등도서관 062-613-7752, 20세기소설영화독본 010-4660-5792. /전은재 기자 ej6621@

슈만·브람스와 클라라의 삼각관계

17일 '김이곤의 클래식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산책' 7월의 무대는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을 주제로 연다. 17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슈만과 브람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클라라의 이야기를 담았다. 슈만과 브람스에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클라라를 재조명한다.

공연에서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 중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나의 눈물에서' 등을 선보인다. 또 브람스의 가곡 중 수작으로 꼽히는 '나의 여왕님 그대는 얼마나'를 비롯해 '그대의 푸른 눈',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등을 무대에 올린다. 클라라의 '어두운 꿈속에서' '그대는 왜 나에게 물어보려 하나' 등의 곡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정기연 바리톤 박흥우

깊이 있는 인문학적 해설과 재치 있는 입담을 들려주는 콘서트 가이드 김이곤이 진행을 맡으며 피아니스트 정기연이 무대에 오른다. 바리톤 박흥우와 그의 두 아들 박예찬(바리톤), 박성찬(베이스 바리톤)이 함께 무대에 선다. 공연 후에는 극장 카페에서 커피와 머핀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무르익는 열기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 시작돼 광주 송일중, 화순 능주초, 광주예고 등에서 총 5회의 공연을 진행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는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의 음악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모교인 화순 능주초, 광주

송일중을 비롯 광주 관내 중·고교, 공공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 공연한다. 아울러 음악회를 매개로 정율성의 브랜드화, 문화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5회 차 공연은 예술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예고에서 열려 호응을 받았다. 정율성의 가곡 및 작품을 모티브로 한 편곡작품 및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팝페라 등이 펼쳐

졌다.

오는 25일 수피아여자중, 9월 광신대, 10월 살레시오중 등에서 5회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정율성음악축제' 사업은 이외에도 광주성악공쿠르(8월), 중국 취안저우 방문 공연(9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율성음악축제 홈페이지(http://jysfestival.kr) 참조. 문의 062-670-7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인협회 80명 결실 '동행' 발간

광주시인협회 2018 상반기 회원 작품집 '동행'(도서출판 서서·사진)이 발간됐다.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창작시만을 토대로 엮어낸 첫 시집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작품집 제목을 '동행'이라고 붙인 데서 보듯 시를 쓰는 동인들과 함께 문학의 길을 걷자는 뜻이 담겨 있다.

시집에는 모두 80명의 시인이 두 작품씩 제출해 모두 16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강만, 강산에늘복잔치, 공옥동, 김순금, 김종, 노창수, 이숙자, 임원식, 전원범, 정광훈, 한지연, 허갑순 시인 등의 작품이다.

또한 신년 교례회, 임시총회 및 회장 취임식, 봄철 조태일 문학관 문학기행, 야외 시화전 등 시인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 사진도 담겨 있어 상반기 활동 내역을 가능할 수 있다.

김석문 광주시인협회장은 발간사에서



시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인은 인간의 삶에 주어진 희로애락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한편의 시를 지어냄으로써 가깝게는 자신의 위안을 삼고 독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성천 기자 skypark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올여름 당신의 여행은?**

**'나만의 방법' 찾으면 더 행복해지는 여행**  
무더위엔 역시 '복캉스' 청춘들의 여행법

문화 여행 제주도 개성있는 독립책방들 이제 '책방 올레'다

문양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시인의 마을' 질마재에서 만난 서정주 시인

예향이 만난 이사람 광주시립극단 2대 예술감독 나상만 황금사자기 우승의 주역 광주일보 김창평

여행의 짜릿함, 문화의 즐거움 모두 강진 가우도 질트랙 타고 자연 만끽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점령했나?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2018 민중·인권·평화 <세계 민중 판화>전

여행 초대석  
**나남출판·수목원 회장 조상호**  
"책 만들고 나무 심는 마음 똑같아요"

문화 피플  
삶과 예술의 감회담아 15년 만에 부부전 '동행' 가진 화가 최영훈·조각가 손연자 부부

노중훈의 꿈의 여행  
티 없이 맑은 자연 스위스 루체른 & 루가노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코미디의 두 대가 버스터 키튼 vs. 찰리 채플린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독특한 컨셉으로 사랑받는 도쿄 모리오카 서점

ACC 시네마테크에서 만난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영화감독 박찬욱 형제